워크시트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1]**

연 번	내용	확인
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1	낮잠 및 휴식에 대한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시간,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있다.	☐
1–2	대소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놀이하려는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3	급 · 간식에 대한 영유아의 기호, 먹는 속도와 양을 존중해주고 있다.	☐
1–4	배변, 배뇨 등 영유아의 기본적인 생리적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5	보육교직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2–1	영유아가 만든 결과(작품, 사진, 노래, 블록, 구조물 등)에 대해 존중하며 적절히 게시되어 있다.	☐
2–2	영유아의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3–1	영유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놀이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
3–2	영유아의 흥미, 관심, 기분 및 건강상태를 전반적인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
3–3	영유아 간의 관계를 살피며 상호 역동성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한다.	☐
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4–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4–2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3	양육자의 보육실 참관(절차 및 방법, 안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5–1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상태(기분, 건강, 배변 등)와 가정 내 주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5–2	양육자에게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등 안정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5–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자와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서울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p1~2.

연 번		내용	확인
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
	6-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
	6-3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7-1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7-2	보육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1	어린이집 운영(보육과정, 특별활동, 견학, 행사 등)의 계획과 평가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8-2	반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회의를 통해 협력 및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

1.「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체크 한 후, 원 내 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찾아봅시다.

1) 항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그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항목 내용 : --

----

* 이 유 : --

----

2) 선택한 항목의 소항목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봅시다.

①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소항목 내용 : --

----

* 사 례 : --

----

②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소항목 내용 : ---

----

* 사 례 : --

※ 1), 2)의 내용을 토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의 내용과 이유,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항목의 내용과 이유를 함께 나누어보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사례는 함께 공유하며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2.「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의 내용 중 실천이 필요한 항목을 적어 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작성해 봅니다.

* 항목 내용 : --

----

* 구체적 실천 방안 : ---

----

3. 2.에 작성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대로「나만의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	확인
실천방안	1		□
	2		□
	3		□

워크시트

*** 아동인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1.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2. 아동인권 4가지

① (　　　)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② (　　　)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③ (　　　)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　　　)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3. 이 중, 어린이집에서 실천되기 어려운 기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영유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보호자 및 성인인 부모, 교사가 영유아를 대신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라고 여겨지는 바, 영유아의 참여권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4가지 기본권 중 ‘참여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교사인 내가 생각하는 참여권**

참여권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개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참여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누기

1) '참여권' 하면 생각나는 장면은?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여권을 경험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참여권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참여권 및 참여의 사다리

1. 영유아의 참여권이란?

1) 영유아에게 참여권을 준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2) 영유아의 참여 사례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참여의 사다리(읽기 자료 2)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참여의 사다리를 읽고 설명해봅니다.

참여의 사다리	
참여의 사다리 단계	☐ 1단계 참여조작 ☐ 2단계 피상적 참여, 장식적 참여 ☐ 3단계 명목상 참여 ☐ 4단계 기획된 행사의 자발적 참여 ☐ 5단계 기획된 행사의 실질적 참여 ☐ 6단계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 ☐ 7단계 자기주도적 참여 ☐ 8단계 완전한 참여

2) 참여의 사다리를 읽고, 새롭게 접한 느낌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세요.

워크시트 1

영아들은 교실을 꾸미기 위해 다람쥐를 만들고 있었다. 교사는 이틀 전에 다람쥐 모양의 종이를 오려 놓았다. 어제 영아들은 각자 한 장씩 다람쥐 종이를 갈색으로 색칠하였다. 오늘 영아들은 다람쥐꼬리에 면 공(cotton-ball)을 풀로 붙일 것이다. 칼리의 순서가 되었다. 교사가 꼬리 부분에 풀칠하는 동안 칼리는 교사 옆에 서 있다. 그 후 교사는 면 공이 들어있는 가방에서 다섯 개의 공을 꺼내어 옆에 서 있던 칼리의 손에 건네주었다. 칼리는 공 하나를 들고 풀칠이 되어 있지 않은 꼬리 부분에 그 면 공을 붙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다. "여기에 붙여야지, 칼리." 교사는 면 공을 붙일 자리를 가리켜 준다. 교사는 자신의 손으로 칼리의 손을 잡고 꼬리 쪽에 면 공)을 붙여 주었다. 잠시 후 교사는 처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칼리에게 나머지 공들을 쥐여 준다. 그리고 교사는 다섯 개의 면 공을 꼬리에 붙일 때까지 칼리의 손을 신체적으로 조작하면서 지시를 반복한다. 그러고는 "끝났다. 가서 놀아."라고 말한다. 그 후 교사는 로렌을 호명한다. 로렌이 책상에 올 때쯤 교사는 바쁘게 다람쥐의 꼬리에 풀칠한다. 로렌이 책상에 놓여 있는 풀을 잡으려 한다. 교사는 풀을 치우면서 "그 순서가 아니야."라고 말한다. 로렌이 기다렸다. 면 공을 붙일 차례가 되자, 교사는 칼리에게 했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한다. 잠시 후 로렌이 "왜 이거 만들어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교사는 "네가 면 공을 풀칠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니까."라고 대답한다.

〈Robin Lynn Leavitt(2014). 어린이집의 권력과 정서. 학지사〉 中 p.87-88

이 활동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순서대로 써보세요.)
활동의 목표는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순서대로 써보세요.)
영아가 활동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영아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워크시트2

교사가 학부모가 방문하는 날을 위해 교실에 전시할 학생들의 작품을 고르고 있다. 교사는 주위환경을 밝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할 색채가 풍부한 그림을 찾고 있다, 교사는 한 아동이 자기가 찾고 있던 색감이 풍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교실에 전시해도 되는지를 묻는다.

교 사: 다 마친 후에 네 그림을 걸어도 되겠니?

아 동: 네. 좋아요.

교 사: 좋아. 네 그림이 끝나면 선생님한테 알려줘. 이 그림을 그려서 저기에 걸을 거야. 걸고 싶은 장소는 네가 고를 수 있단다.

아 동: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그림을 그린다.)

교사가 그 영역을 잠시 비운다. 교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까는 밝았던 그림이 지금은 약간 어두워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아 동: 저는 모든 색을 다 쓸 거에요. 보이죠?(붓을 검정 물감에 담근다.)

교 사: 그래. 재미있구나.

아 동: 여기에 검정색을 칠할 거에요.(검정 줄을 그려 넣는다.)

교사는 교실 전시물에 첨가하려고 했던 밝은 색 그림의 색이 달라진 것에 대해 실망했지만 입을 다문 채, 아동이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지켜본다.

〈Trawick-Smith, J.(2012). 놀이지도: 아이들을 사로잡는 상호작용. 다음세대.〉 中 p.358

유아는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교사는 유아가 활동하는 방법을 존중해주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이 상황에서 평소의 나라면 어떻게 반응 했을까요?	

워크시트

영유아와의 소통에 대한 생각 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a07U2DO0PMA

인성채널 e - 당신의 듣기 점수는?

영상 속 한 줄 MEMORY

"대화의 3분의 2를 **상대방과 그가 하는 말을 생각**하는 데 쓴다."

– 에이브러햄 링컨 / 미국 16대 대통령

1. '나의 듣기 점수'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듣기? 당신의 듣기 점수는 몇 점입니까?

– 내가 만약 챌린저호 책임자라면, 기술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2) 교사로서의 나의 듣기? 영유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 기억에 남는 영유아의 말이 있습니까?

ex, "포기는 대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게으름이에요."(만3세 유아)

– 오늘 하루 영유아에게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주로 말하는 것이다.” (Meier, 1995)

2.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영유아와 의사소통함에 있어 나의 강점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영유아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왜 어려울까요?

아이 생각이 어른 생각보다 좁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과 다를 따름입니다.
아이들은 지성으로 사고하지 않고, 감성으로 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 야누슈 코르착의「아이들」

영유아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

영유아의 말 특성 이해하기	- 영유아의 말은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발달 특성을 갖고 있다. -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수시로 질문하는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교사는 이를 귀찮아하거나 짜증 내지 않고 성의 있게 대답해 줄 것이다. - 영유아가 말을 잘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이해하는 교사는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를 낮추고 단순한 단어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며, 영유아가 부정확한 말투로 말하더라도 정확한 말로 바꾸어 말해주거나 완성된 문장으로 다시 말해줄 것이다.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이기	- 영유아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무엇이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 영유아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 교사는 영유아가 말할 때 진심 어린 태도로 관심을 보이며, 영유아의 말을 인정하고 따뜻한 말과 신체적 접촉, 수용의 눈빛 등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교사의 주도권을 줄이고 질문하기	- 교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수업형(lesson)' 대화 방식에서 영유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답하는 비형식적인 대화 방식인 '토론형(discussion)'으로 전환될 경우 영유아를 존중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유아의 대답 기다려 주기	- 교사는 영유아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답을 먼저 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계획된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설명'하고 마는 것이다. - 개방형 질문의 경우 영유아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특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주면 말을 많이 하지 않던 영유아도 말을 시작하고 흥미 있는 생각을 나타내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영유아의 대답에 평가적 표현 줄이기	- 바람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잘못(misbehavior)'이라기보다 '실수(mistaken behavior)'로 받아들이고 위협이나, 비난, 비교, 무시 등의 말투를 자제해야 한다. - "맞아", "잘했어" 등의 긍정적 평가조차 영유아의 대답이 교사의 판단을 받는다는 암시를 주므로 영유아의 대답에 대해 평가적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 영유아의 대답에 대해 "고맙다"라고 간단히 말하거나 미소나 끄덕임 같은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긍정어 사용하기	- 부정어나 통제어보다는 긍정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시물을 만지고 있는 영유아에게 "만지지 마"라고 말하면 영유아는 만지는 행동을 중단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빨리 판단하기 어렵다. 대신 "눈으로만 보자"라고 하면 손으로 만지는 대신 눈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흥미는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적절하게 칭찬하기	- (칭찬을) 기분을 북돋워주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영유아의 행동을 안내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일반적인 칭찬 어휘를 사용하는 것(“참 착하구나.”)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격려(“~을 잘 정리했구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명과 선택권 제공하기	- 영유아가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에도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해야한다. - 영아가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더라도 교사는 “코트 없이 나가기에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라는 식으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함을 이유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영아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골라볼래?”와 같이 영아에게 선택권을 주면 영아는 자신이 힘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 출처 : 이재연 외(2015). 아동권리 0-8. 교육과학사

나의 다짐 기록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a07U2DO0PMA

지식채널 e - 눈맞춤의 힘

영상 속 한 줄 MEMORY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 랄프 왈도 에머슨

워크시트

사례 1. 영아(22개월, 여아)

학기 초 영아는 교사가 자신의 도시락에 싫어하는 반찬을 담아주려고 하자 담는 부분을 가리며 “안 먹어.”라고 말한다. 교사가 안 먹어도 괜찮으니 다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수긍하였으나, 식사 중 건더기를 제외한 국물과 밥만 먹는다. 교사가 반찬 한 가지와 밥 한 번씩을 먹어보라고 권유하며 먹여주려고 하였으나, 영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끝내 거부한다. 혼자서 다섯 번 정도 밥과 국을 떠먹은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역할영역에 있는 인형을 꺼낸다. 교사가 영아에게 다가가서 밥을 다 먹고 정리한 다음에 놀 수 있다고 차분히 설명한 후 다시 자리로 데려가서 앉혔으나 금세 교사를 피해 교실을 뛰어다닌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혼자서 숟가락질을 잘 하는 편이나, 식사 시간에 자주 돌아다니는 영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교사는 고민이 된다.

사례 2. 유아(36개월, 남아)

적응기간이 지난 다음 점심 식사를 정식으로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유아는 일주일 동안 밥을 제외한 반찬과 국물만 먹는다. 등원 때부터 배식을 할 때까지 수시로 “밥 진짜 조금만 주세요.” 한다. 식사시간에는 밥을 남긴 채로 숟가락을 들고 옆 친구와 장난을 칠 때가 많다. 밥과 반찬을 함께 먹자고 달래서 한입 넣어주었더니, 헛구역질을 하면서 밥을 뱉어버린다. 교사는 밥을 뱉으면 안 된다며, 다음부터 세 번은 꼭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후로 유아는 교사 몰래 밥을 바닥에 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그만 먹을래요. 배 아파요.”하며 정리해놓은 식판에 밥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의 식판을 올려놓고 놀이영역으로 가버리거나, 식판과 수저를 그대로 둔 채로 밥을 다 먹은 친구들과 놀기도 한다. 반찬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유아가 유독 밥만 먹지 않고, 간식을 먹을 때는 한 번도 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다.

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4) 3)의 방법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선택한 방식 :		
	영유아	교사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영유아를 반복하여 관찰하고 부모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합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향 요인에 따라 교사는 훈육방식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① 발달적 특성	☐ 미세근육 발달 수준(씹기, 삼키기, 잡기 등) ☐ 언어적 상호작용(의사 표현, 이해 수준 등)
② 기질적 특성	☐ 감각적 예민성 ☐ 새로운 자극에 대한 관심 표현 정도 ☐ 낯선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적응 정도
③ 경험 정도	☐ 혼자 숟가락질을 해본 경험 ☐ 음식 재료에 대한 경험 ☐ 정해진 자리에서 먹는 습관 ☐ 집단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 경험
④ 당일 컨디션	☐ 등원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 사건 ☐ 오전 일과 중 영유아의 기분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 ☐ 감기 등 질병
⑤ 기타	☐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가족 환경	① 구성원 특성	☐ 아침 식사 방식(시간대, 양, 종류 등) ☐ 부모의 편식이나 식습관
	② 양육방식	☐ 부모의 지도(편식 지도 등)
	③ 기타	☐
기관 환경	① 급·간식 시간 전후	☐ 활동이나 놀이에 대한 관심 및 집중 정도 ☐ 활동이나 놀이를 지속하는 시간 부족
	② 배식 방식	☐ 교사 일괄 배식 ☐ 유아에게 선택권 제공
	③ 식사 환경	☐ 정해진 자리 없음 ☐ 교구나 놀이영역의 접근성
	④ 지도 교사	☐ 지도 교사 인원 부족 ☐ 지도 교사의 식습관
	⑤ 기타	☐

3. 급 · 간식 시간에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1) 영유아가 이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골고루 다 먹어야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영유아는 급 · 간식 시간을 무서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주로 오랫동안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종종 토하거나 버리기와 같은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예측(기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시간을 긍정적으로 견디고 있는 영유아를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2)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거나, 행동이나 표현에 숨어있는 감정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면, 영유아는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감정을 반영해주면, 영유아는 교사를 통해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교사의 제안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거나 감정을 반영해주는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3)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영유아를 지도하고, 교사 또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시가 늘어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때 더욱 반항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교사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만 3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선택권을 줍니다. 유아는 대개 자신의 선택에 따른 행동을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4) 영유아에게 연습과 반복의 중요성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선택한 음식을 성공적으로 먹었을 경우, 선택과 행동에 대해 격려해주면 됩니다. 실패했더라도 '연습'을 강조해주어 영유아가 다음에 다시 도전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식사시간 전후로 어떤 놀이나 활동을 하는지, 식사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해봐야 합니다.

식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6) 가정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할 정보와 요청해야 할 도움을 적어봅시다.

워크시트

또래 갈등(친구 때리기) 훈육 사례 나누기

사례 1. 영아(22개월, 여아)

영아는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다. 다른 친구가 다가오는 것을 본 영아는 “아잉~”하면서 싫은 내색을 한다. 친구는 영아 주변에 놓여있는 블록을 집어 든다. 영아는 친구의 블록을 뺏으려고 잡아당기다가 친구의 팔을 꼬집는다. 서로 블록을 잡아당기다가, 영아는 뺏으려던 블록에서 손을 떼고 양손으로 친구의 얼굴을 꼬집는다. 교사는 영아를 불러서 왜 친구를 꼬집으면 안 되는지 단호하게 설명한다. 그 때 영아는 드러누워서 울며 발버둥을 치다가 교사를 발로 차기도 한다. 영아는 친구들과 갈등 상황에서 꼬집거나 물거나 할퀴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다. 교사가 영아의 잘못을 지적하면 영아는 더욱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교사를 곤란하게 한다.

사례 2. 유아(만5세, 남아)

유아는 블록으로 로봇을 만들고 있다. 원하는 블록을 다른 친구가 쓰고 있어서 자신의 로봇을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친구에게 원하는 블록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다. 얼굴 표정이 약간 굳은 채로 조급하게 다른 블록을 찾는다. 그 때 정리 시간이 되었으나 유아는 여전히 필요한 블록을 찾기 위해, 로봇을 바닥에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다.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친구가 유아의 로봇을 정리하려고 집어 든다. 그 모습을 본 유아는 재빠르게 달려와 친구를 밀치고 “내꺼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쥔 블록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친다.

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4) 3)의 방법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선택한 방식 :		
	영유아	교사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영유아를 반복하여 관찰하고 부모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합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향 요인에 따라 교사는 훈육방식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① 발달적 특성	☐ 신체 발달 ☐ 사회성 발달 ☐ 언어적 상호작용(의사 표현, 이해 수준 등)
② 기질적 특성	☐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함 ☐ 감정 기복이 심함 ☐ 흥분을 잘 함 ☐ 일상적인 지루함을 잘 못 견딤 ☐ 감각적 예민성 ☐ 걱정이 많고 불안해 함 ☐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큼 ☐ 사람들과 교류를 좋아하지 않음
③ 경험 정도	☐ 또래(혹은 형제)와 함께 지낸 경험 ☐ 집단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 경험
④ 당일 컨디션	☐ 등원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 사건 ☐ 어린이집 일과 중 영유아의 기분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
⑤ 기타	☐ ________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가족 환경	① 구성원 특성	☐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부모의 방식 (소리 지르기, 협박하기, 체벌 등) ☐ 부모의 정서 문제(우울, 불안 등) ☐ 형제 관계 갈등
	② 양육방식	☐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 ☐ 지나치게 허용하는 양육 ☐ 자녀 간 차별 대우
	③ 가족의 변화	☐ 부모 이혼, 재혼, 사별 ☐ 양육자 교체 ☐ 동생 출생
	④ 기타	☐
기관 환경	① 직전 사건	☐ 또래의 접근 ☐ 또래에게 접근 ☐ 또래의 거절이나 배척
	② 공간 구성	☐ 놀이 영역 협소 ☐ 놀잇감 부족 ☐ 정리 공간 부족
	③ 시간 구성	☐ 놀이시간 부족 ☐ 지루한 시간 ☐ 휴식(낮잠) 부족
	④ 지도 교사	☐ 명확한 규칙 부족 ☐ 1 : 1 교류 시간 부족
	⑤ 기타	☐

3. 친구를 때리는 영유아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1) 사전 예방이 가장 우선입니다.

① 영유아가 보이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감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감정 덩어리를 조금씩 나누어 읽어주면, 감정의 덩어리가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거나 무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에 담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반영해줄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②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기대와 믿음을 전달하는 것도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③ 결과와 원인의 순으로 인지하게 해주며 공격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갈등상황에 있던 아이들에게 결과와 원인의 순으로 행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교사가 재빨리 개입하여 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2) 갈등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 모두 진정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영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을 때 입력되는 자극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 교사의 사소한 표현, 또래의 반응 등을 비난, 통제, 처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문을 할 수도 있으나 흥분한 상태에서의 교사 발문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왜 그랬니? 친구 마음은 어떨까? 등)을 하기 보다는 영유아의 감정을 추측하여 우선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읽어주거나 감정을 반영해주는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

3) 진정이 된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마음을 100% 공감해주되, 우리가 약속한 규칙은 무엇인지,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변 상황을 설명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교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유아를 훈육해야 합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

4)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적절한 대안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적절한 태도나 지지적인 언어표현을 적어봅시다.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방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6) 가정과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할 정보와 요청해야 할 도움을 적어봅시다.

워크시트

보육활동 시, 방해 행동에 대한 훈육 사례 나누기

사례 1. 유아(만4세, 여아)

대그룹 영역에 모여 앉는 시간이 되자 유아는 의자를 가져온다. 의자에 앉은 다음 두 팔과 다리를 쭉 뻗는다. 이야기 나누기가 시작되자 두 팔과 다리를 흔들며 옆에 앉은 유아를 건드린다. 친구가 불편하다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흔들거린다. 교사가 의자에 바르게 앉으라고 이야기 했으나 소용이 없다. 바닥에 앉으면 바르게 앉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의자 앞쪽에 앉는다. 잠깐 시간이 지난 후 앞에 앉은 친구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등을 누른다. 친구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다리를 흔든다.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수업은 계속 끊기고, 아이들은 불편함을 토로한다.

사례 2. 유아(만5세, 남아)

친구들과 동화를 듣기 위해 카펫에 모여 앉았다. 도입 부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였고, 다른 아이들과 동시에 손을 들었지만 발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선생님의 동화를 듣는 중간 중간 “아~ 재미없어.” “야~ 저거 꿈 속이야.” 라고 말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다. 교사는 “지금은 동화를 듣는 시간이에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하세요.”라고 지적한다. 유아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이야기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 다른 책 한 권을 가져와서 펼친다. 책을 읽는 시늉을 하며 부자연스럽게 웃고 몸을 움직이며 “이게 훨씬 재미있지롱~”하고 말한다. 교사가 다시 지적하자 책을 내려놓긴 했으나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방귀 냄새가 난다며 과도하게 행동한다.

1.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와 영유아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1) 영유아의 행동이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2) 교사는 영유아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3) 2)를 위해 어떤 방법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4) 3)의 방법을 시도했을 때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을 나누어서 생각해봅시다.

선택한 방식 :		
	영유아	교사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2. 훈육 전,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봅시다.

영유아를 반복하여 관찰하고 부모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합하여,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향 요인에 따라 교사는 훈육방식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발달, 기질, 경험 정도 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❶ 발달적 특성	☐ 인지 발달(언어 이해력, 주의집중 정도 등) ☐ 언어 발달(의사 표현, 이해 수준 등) ☐ 신체 발달(자세 유지)
❷ 기질적 특성	☐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큼 ☐ 싫증을 잘 냄 ☐ 일상적인 지루함을 잘 못 견딤 ☐ 흥분을 잘 함 ☐ 에너지가 커서 쉽게 지치지 않음 ☐ 참을성 부족 ☐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큼 ☐ 사람들과 교류를 좋아하지 않음
❸ 경험 정도	☐ 집단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 경험 ☐ 수업 내용과 비슷한 활동 경험 혹은 지식 보유 유무
❹ 당일 컨디션	☐ 등원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 사건 ☐ 어린이집 일과 중 영유아의 기분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
❺ 기타	☐ ________

2) 영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찾아봅시다.

구분		내용
가족 환경	❶ 구성원 특성	☐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 ☐ 가족 내 상호작용 부족
	❷ 양육방식	☐ 지나치게 허용하는 양육 ☐ 정서적 방임
	❸ 가족의 변화	☐ 부모 이혼, 재혼, 사별 ☐ 양육자 교체 ☐ 동생 출생
	❹ 기타	☐
기관 환경	❶ 직전 사건	☐ 다른 친구가 교사에게 관심을 받음 ☐ 직전 활동 시간에 과도하게 흥분 ☐ 또래의 거절이나 배척
	❷ 공간 구성	☐ 비효율적인 자리 배치 ☐ 영유아 사이 협소한 공간
	❸ 시간 구성	☐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시간 분배 ☐ 지루한 수업 내용 및 방식 ☐ 휴식(낮잠) 부족
	❹ 지도 교사	☐ 일방적인 수업 진행 ☐ 수업 진행시 돌발 상황 대처 부족
	❺ 기타	☐ ________

3. 수업을 방해하는 영유아는 이렇게 지도해봅시다.

1) 일과 중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때 매우 민감하게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교사나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적절한 행동만을 지적하기보다는 평소에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는 교사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그 행동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영유아가 하루 일과 중 적응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2) 에너지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질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높은 영유아는 활동량도 많고, 타인에게 관심받으려는 욕구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교육 내용이 너무 정적일 경우에는 에너지 해소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낄 때 산만한 행동 등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 에너지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어봅시다.

3)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영유아 중에서는 주의 전환이 잘 되지 않는 영유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우 즐겁게 흥분하여 어떤 놀이를 한 직후 진정하는 데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동적인 활동을 한 후 정적인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무리와 도입 사이에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의 전환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적어봅시다.

4)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달 수준이 평균 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발달이 느릴 경우, 활동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발달이 우수한 경우, 활동 내용이 너무 쉽고 지루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인지 발달이 현저히 늦거나 빠른 영유아의 방해 행동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봅시다.

5) 환경적, 물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동안 불필요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생길 경우 주의가 흐트러지면서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사전에 정한 방식이나 계획대로만 수업을 진행할 경우, 자유분방한 특성이 강한 아이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주의 전환이나 집중에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6) 가정과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할 정보와 요청해야 할 도움을 적어봅시다.